

흥도동 마을지, 2018년부터 3권 연속 발간

이번 호 고양 역사 산책에서는 2018년부터 기획시리즈로 마을지를 발간하고 있는 고양시 덕양구 흥도동의 책자 발간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한다. 흥도동은 원흥역과 원흥도래울마을, 일부 삼송마을, 원흥마을이 있는 농촌과 도시 복합 행정동으로 신도시 개발 등을 통해 급변하고 있는 곳이다.

글. 사진. 정동일(고양소식 편집위원)



지난 2018년부터 발간된 세 권의 마을지(왼쪽부터 1편, 2편, 3편)

급변하는 흥도동(興道洞)

흥도동은 2010년대 이후 삼송신도시, 원흥마을, 원흥도래울마을의 개발 등이 이루어지면서 인구가 크게 증가했다. 평범했던 농촌 마을인 가시골·솔개·동촌·석탄촌·서촌마을에 아파트 단지가 들어 서면서 삼송동, 창릉동, 향동동 등과 함께 큰 변화를 겪은 곳이다. 그러나 나무드머리, 궁말, 샛말, 별아산(베라산), 서재동(소죽골)은 옛 자연촌락 마을의 모습도 유지하고 있다. 여기에 도내동 지역의 대부분은 3기 신도시인 창릉신도시 지역에 포함되어 도시화의 과정은 더욱 빨리, 대규모로 진행될 예정이어서 그 모습은 더욱 크게 변화하거나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총 3권으로 만들어진 흥도동 이야기

이렇게 마을의 모습이 급변하고 많은 시민들이 신규로 입주하자 흥도동과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2018년부터 단행본 책자를 발간하기로 했다. 새로 입주한 주민들이 지역에 대한 애향심과 지역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돕고,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에 대한 기록을 남기기 위함이다. 주민자치위원회, 행정복지센터, 주민들이 함께 노력하여 발간한 책자의 원고와 사진은 흥도동 주민이 맡아 진행했다.



걷기 좋은 누리길

흥도동의 문화유산, 사라지는 지명, 누리길 이야기

문화유산 이야기(2018)

2018년도에 발간된 책자의 이름은 '문화유산 이야기'다. 현재 흥도동에 소재하고 있는 경기도 문화재와 향토문화재, 보호수 나무 10여 점이 수록되었다. 학생들의 수준에 알맞게 사진과 쉬운 문화재 해설로 누구나 알기 쉽게 만들어 학교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사라지는 지명 이야기(2019)

2019년도에는 창릉신도시 개발과 도시 개발 등으로 급격히 사라지고 있는 지명(땅이름)과 유래, 마을의 약도를 책자로 발간하였다. '사라지는 지명 이야기'로 발간된 책자는 은못이, 원흥동, 나무드머리, 별아산마을의 유래와 산과 하천의 이야기를 포함하여 만들어졌다. 특히, 오랫동안 이러한 지명을 사용한 원주민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았다.

누리길을 걷다(2020)

2020년에는 마을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걷기 좋은 누리길 이야기'를 책자로 발간했다. 흥도동 마을의 걷기 좋은 길인 솔시길, 창릉천길, 도당산길, 강 고개길로 코스를 구분하여 시민들이 쉽게 걸으며 흥도동을 알 수 있도록 했다. 누리길 코스에 길이, 소요시간, 난이도, 주요 지점에 담긴 이야기를 수록하여 시민들의 걷기에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향후 시리즈로 발간 예정

고양시 덕양구 흥도동은 앞으로도 큰 변화가 예상되는 곳이다. 이 중 핵심은 창릉신도시 건설인데, 주민들과의 원만한 협의를 통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신도시 개발 성공사례가 되었으면 한다. 도시 개발로 없어지고 사라지는 많은 것들을 흥도동에서는 책자 발간 등을 통해 기록으로 남길 예정이다.